

# 地方 建築士가 갖이는 問題点과 解決對策

尹 榮 在

同一한 資格을 갖고 同一한 業務를 遂行하는 建築士에게 있어서 唯獨히 地方建築士만이 갖는 問題点이 있다고 하면 얼핏 疑訝하게 生覺 하기 쉬울 것이다. 그것이 正常일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있어서는 안될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많은 問題가 現實적으로 地方建築士를 괴롭히고 있고 또 將來를 危脅할 憂慮마저 없지 않은 實情이다. 이러한 問題点들이 어떠한 것이며 또 왜 發生하게 되며 結果로서 어떠한 現象을 超來하게 될것인가 또 予防과 解決方案은 어떠한것이 있겠는가 等等에 對하여 言及 해보기로 한다. 數多한 問題点中에서 直接的이고 致命的인 影響을 주는 한두가지 問題点만 指摘해 본다. 첫째는 地方에서 發生되는 일감(設計件)이 大都市 (主로 서울)로

流出 되는 問題다. 얼핏 生覺에는 地方建築士의 業務量이 多少 減小 되겠지 하는 程度에서 끝일것이다. 事實上 業務量의 減小만이라면 여기서 言及할 資料가 되지 않겠으나 놀랄만큼 무서운 癌의 要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도 傍觀할수 없는 立場에 서게 될것이다. 大都市로의

流出에 對하여 其原因과 動機 經緯等을 分析해 본다면 첫째 自己技術의 所重함을 認識 못하고 無價値하게 賃값으로 싸구려를 부르는 1部의 沒知覺한 大都市 建築士들의 容怒 못할 行爲로 因한것. 둘째로는 設計 Broker들과 半打作하는 名義貸興行爲를 本業인양 도장만 눌러대는 寒心스럽고 가련한 建築士들의 不法行爲로 말미암은 流出 셋째는 地方建築主의 虛榮心으로 因한것 即 大都市에 가서 設計한것을 자랑삼는 無分別한 優越感이 流出의 原因이 되는경우 넷째는 建築物의 發生地는 地方이지만,

建築主의 住居地가 大都市에 있는 경우로서 이는 當然한 流出로 言及의 對象은 아니다.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은 몇가지 境遇로 因하여 流出되는 件數는 地方別로 差異는 있겠으나 5% 乃至 10% 程度로 볼수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모두가 不正한 方法으로 流出 된것은 아니다. 其中 80%以上이 指摘의 對象이 된다고 본다. 첫

째 둘째, 셋째에 該當되는 流出이 地方建築士에게 더 나아가서는 國家社會에 미치는 影響이 얼마나 무서운 結果를 超來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多売薄利하는 路店商人처럼 賃값으로 Dumping하는 行爲가 行爲者自身の 無能함과 無價値한 技術提供의 代價로 받는 報酬니만큼 低廉한 待遇를 받는것이 妥當하다고 自認하는 態度를 갖는것 만으로 끝난다면 또 모르겠으나 大都市에서 地方各處를 對象으로 하여 싸구려를 불러대는 形便이고 보면 地方建築士도 本意 아니게 어쩔수 없이 이에 따르지 않고는 견디어 나갈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總和團結로 業務秩序를 確立하여 建築士業務의 正常化를 위하여 萬難을 무릅쓰고 七顛八起하여 組織한 相助會나 共濟會는 破散이 不可避하게 될것임을 너무도 明明白白한 事實이다.

바로 이는 建築士의 業務秩序는 勿論이고 社會秩序를 紊亂시키는 行爲로서 庶政刷新에 逆行하는 行爲임은 누구도 否認못할 事實일 것이다. 이와같은 秩序의 紊亂은 建築物를 低質化하고 建築士의 發展을 沮止하게 되는 더 큰 副作用을 낳게 한다. 한가지가 바로 輕視 못할 癌의 要素이다. 低廉한 報酬를 받고 業을 行하는 것이 얼핏 生覺하기에는 建築主에게 經濟的負擔을 덜어주어 큰 도움이니 주는것 같이 誤解 하기 쉽다. 그러나 實에 있어서는 建築主個人에게 뿐만 아니라 國家의으로도 損失이 莫大한 結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自己技術의 所重함을 認識 못하고 賃값으로 行事 하는 자가 어찌 他人의 建築物의 所重함을 認定할수 있겠느냐 하는 점도 있으려니와 그의 技術의 能力이라든가 資質도 可히 짐작 하고도 남음이 있을 程度이고 보면 그의 設計가 果然 構造的인 面이라든가 機能的인 面에서 또는 造形的인 面에서 어느 程度의 合理性을 갖었겠느냐 하는 疑問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싼것이 비지떡이다」란 말은 이런境遇에 匹敵되는 比喩語가 아닌가 싶다. 分別 없는 建築主들은 값싼 비지떡만을 찾을 것이니 결국 비지떡설계가 날개 치게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問題는 더욱 深刻해 진다. 建築物의

質을 向上發展 시키기 爲해 온갖 努力과 研究와 誠心을 다 하여야 할뿐더러 分別없는 建築主를 啓蒙 指導 說得 하여 바른 建築을 할수 있도록 引導 하여야할 重責을 忘却 하고 도리어 建築主나 國家社會에 累를 끼치는 存在가 建築士中에 있다면 이어져 寒心之事가 아닐수 있겠는가 自己技術의 所重함을 認識 못하고 自己에게 附課된 責務를 認識 못하는 寒心스럽고 가련한 建築士中에 “나”는 包含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쯤 反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둘째의 境遇인 設計Broker와 半打作하는 名義貸與行爲는 또 어떠한가? 이러한 不法行爲에比하면 “비저택설계”는 그래도 좀 낫은 便이다. 이것은 建築士라기 보다는 自動捺印機械라고 命名하고 싶은 心情이다. 도장만 눌러주고 不勞所得 建築士 참 어처구니 없다고나 할까 短文한 本人으로서는 實感있게 表現할 方法이 없어 遺憾千萬이다. 資格有無에 關係없이 비슷하게 그리기만 했으면 눌러주고 눌러주면 許可處理가 되고 한다면 資格制度가 무엇에 必要 하겠는가? 이러한 行爲者에 對하여는 關係當局으로 부터도 斷乎한 措置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스스로의 反省으로 自動捺印機가 되지 않기 爲해서라도 眞實된 建築士의 姿勢로 돌아가 建築文化發展에 寄与도록 해야 할것이다.

셋째는 1部이기는 하지만 地方建築主들의 無分別한 虛榮心으로 말미암은 大都市로의 流出 現狀인데 實質적으로 眞實하고 有能한 建築士를 찾아서 좋은 作品의 設計를 얻은 結果라면 多幸이겠고 또한 勤槓도 할수 있겠다. 그러나 十中八九는 어떠한 設計인가. 속된말로 헛다리 짚은 格이라 할까 怪異한 제멋대로의 設計를 하여 받고도 滿足해 하는 建築主가 가없을 때도 없지 않다. 우리 建築士는 이러한 現實을 傍觀視 할것이 아니라 熱과 誠意를 다하여 指導 啓蒙 함으로서 無分別한 建築主들에게 對한 바른 認識을 갖도록 하는 것도 우리에게 附課된 任務일 것이다.

以上에서 分析한 結果로서 어렵기는 하지만 解決 對策은 다음의 몇가지 方法으로 歸結 지을수 있지 않을까 生覺 한다. 첫째 國家로 부터 우리 建築士에게 附課된 任務가 얼마나 重且大한 것인가를 恒常 認識하며 建築家라고 하는 矜持를 갖이고 自己位置를 恒常 確認하면서 조심스럽게 行動하는 것을 建築士의 生活信條로 할것이며 둘째로는 自己가 받는 設計報酬는 他人으로 부터 評價되는 技術能力의 尺度임을 銘心 하려면 低廉한 報酬로 業務行爲를 할때는 自己의 無能을 自認하는 結果가 되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것이다. 셋째로는 國內에서 어느分野

보다도 資格基準이 가장 높은것이 建築士란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事實이다. 이처럼 어려운 資格을 獲得한 建築士로서의 自己의 位置를 遜色 없이 지켜가고 있는지를 再三 再四 確認하면서 業務遂行에 慎重을 期한다. 이만 하면 우리에게 癌的要素인 Dumping 行爲나 名義貸與 行爲等의 問題點은 充分히 鮮決되리라고 믿어 疑心치 않는다. 둘째의 問題點은 事務所의 經營難으로 이는 補助 技士의 確保人員을 制度化 한데서 더욱 甚히 꺾어야 하는 現實이기에 이에 對하여 言及해 보기로 한다. 地方에 있는 建築士事務所의 大部分이 取支不均衡으로 因한 經營上의 많은 困難을 겪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이다. 設計補助技士의 確保人員을 義務化 한데는 나뉠대로의 理由와 合理的인 趣旨가 있기는 하겠으나 어떠한 事業에 있어서나 形便과 事情에 따라 人員이 調整 되어 가는것이 純理요 正常이 아닐까. “누울 자리보고 발 뻗으라”라는 속담을 한번쯤 생각 할일이 아닌가 한다. 더욱 이同等한 水準의 補助技士를 採用할 境遇 大都市보다 地方小都市로 갈수록 많은 給料를 支拂하여야 되는 것도 또한 惡條件의 하나이다. 같은 報酬라면 大都市로 進出한다는 것이 그 理由일 것이다. “일감”은 적은데다 給料는 높게 支拂해야 되니 이것이 雪上加霜格이 아닌가. 이같은 問題點이 없다는 叱더라도 矛盾이 아닐까? 왜냐하면 建築士가 아니면 할수 없다 라고 法에서 規定한 業務를 遂行 함에 있어 반듯이 設計補助士가 있어야 한다면 補助技士와 合作을 하여야 設計圖面의 法的 效果가 있다는 것인지 理解하기 쉽게 難할 뿐더러 主客이 顛倒된 格이 아닐수 없다. 또한 이로 因하여 設計作品의 低質化와 設計報酬의 Damping 行爲를 誘發할 可能性도 없지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業務量이 적은 小都市의 事務所일 경우 經費支出을 念慮하는 나머지 設計作品이야 어찌되든 關心없이 “일감”을 찾아 東奔西走하는 建築士의 事務態度보다는 적은 業務量이나마 經費를 節減하고 建築士 自身이 設計著作에 沒頭할때 훌륭한 作品이 著作될 수 있지 않겠는가? 以上에서 指摘한 外에도 많은 問題點이 있다고 生覺한다. 이점에 對하여는 當局에서 充分히 再檢討 해주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이다.

以上에서 몇가지 問題點에 對하여 言及 하였으나 短文하여 內容이나 表現이 不充分 할뿐더러 未及한 點이나 缺禮되는 點等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미리 謝過하는 바이며 紙面을 通해서나마 本人의 所見을 披瀝할수 있는 機會를 마련 해준 本協會當局에 感謝 하는 바이다.

— 以上 —

(청주종합건축설계공사)